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연준, 인플레 싸움에서 점진적인 접근 수용
- WSJ: 금리 인하 다가오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경로에 동의하지 않아
- Bloomberg: 미국 소도시에 관광 및 제조업 붐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엔비디아, S&P500의 4조 달러 회복세를 테스트한다

[미국 생활]
- WSJ: 미국인들,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힘들다고 느낀다
- CNNBusiness: 1백만불 401(k) 미국인 숫자 최고치 도달
- Bloomberg: 세대 간 주택 공유, 미국 노인 외로움 덜어준다

[주택]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 다시 감소, 작년 4월 이래 최저치

[에너지]
- CNBC: 미국 원유 2% 하락, 리비아 혼란에도 매도 속도 증가
- Bloomberg: 친환경에너지 일자리, 미국 전체보다 2배 성장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CNBC: 저렴한 세트 메뉴가 돌아오다
- WSJ: 월마트, 외부 판매자를 위한 물류 제공
- Bloomberg: CFPB “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수백만불 이익”
- Bloomberg: 현대 하이브리드 라인업 2배 확대

[보고서]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Embraces Gradualism, a Familiar Policy for Uncertain Times
연준, 인플레 싸움에서 점진적인 접근 수용

- 오늘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와의 싸움 마지막 단계에서 점진적인 접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.

- 최근 연준의 잭슨 홀 연례 회의에서 다수의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를 ‘점진적’ 또는 ‘체계적(methodical)’ 방식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는 올 가을에 한 번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상반되는 것이다.

- 이 같은 이유와 관련해서, 인플레는 연준 목표치 2%로 완전히 둔화되지 않고 있다. 특히 노동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해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.
- 한마디로 금리 인하 방식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이고, 조심스런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Fed Rate Cuts Are Coming, but Investors Disagree on the Path Forward
금리 인하 다가오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경로에 동의하지 않아

- 시장은 올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.
-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준이 9월과 11월에 각각 0.25% 금리 인하, 12월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.
-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룹은 노동시장의 둔화와 실업률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. 연준이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실업률은 악화하리란 것.
-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9월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. 이에 따라 9월에 0.25% 금리 인하냐 0.50%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.
- PIMCO의 글로벌 경제 자문위원인 Richard Clarida는 “연준이 9월, 11월, 12월에 똑같이 0.25%의 금리를 인하할 것"이라고 주장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Tourism and Manufacturing Drive Boom Across US Small Towns
미국 소도시에 관광 및 제조업 붐

- 관광과 제조업이 미국 소도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.
- 비영리 정책 연구소 Heartland Forward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역동적인 소도시 목록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객과 원격 근무자들을 끌어들이는 도시, 대규모 전기차가 들어서는 도시,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도시에 높은 순위를 줬다.
- Heartland Forwar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빈 사무실, 출퇴근 거부감, 더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열망 등 판데믹 이후 대도시의 걸림돌이었던 부분들이 소도시에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. 또한 제조업 투자가 소도시의

성장 동력이 됐다. SK이노베이션의 리튬 배터리 공장 투자가 있던 조지아주 Jefforson이 대표적인 예다.

- 보고서 상위 10개 도시 중 7개 도시는 관광업이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. 와이오밍주 Jackson, 플로리다주 Key west-Key Largo, 콜로라도주 Breckenridge 스키 리조트가 대표적인 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Nvidia's Earnings Will Test the S&P500' s $4 Trillion Recovery
엔비디아, S&P500의 4조 달러 회복세를 테스트한다

- ChatGPT를 선보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3조 달러의 랠리를 보였다. 주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.

- 엔비디아 주가가 28% 올랐던 기간인 지난 8월 5일부터 23일까지 S&P 500은 시가 총액이 4조달러 회복되었다.

- 옵션 시장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오늘 수요일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방향으로든 거의 10%의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데 시총의 3천억달러를 바꿀 영향력을 갖고 있다. 이 회사는 S&P500 시총의 6.7%를 점하고 있는데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회사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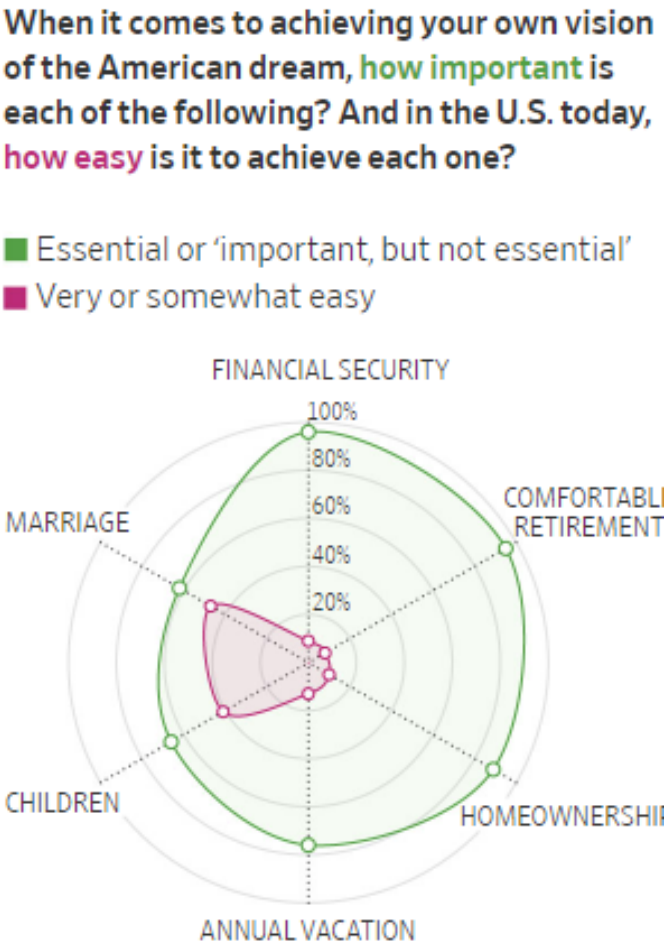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미국 생활]

WSJ: The American Dream Feels Out of Reach for Most
미국인들,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힘들다고 느낀다

- 월스트릿 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주택과 편안한 노후 등을 원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이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말한다.

- 1천5백2명의 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%가 주택 소유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10%만이 이를 이루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이나 편안한 은퇴에 대해 응답자의 96%가 필수적이거나 중요하다고 보지만 단지 8%나 9% 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.



WSJ 기사

CNN Business: Number of 401(k) 'millionaires' reaches new high
1백만불 401(k) 미국인 숫자 최고치 도달

- 피델리티는 자체 2천4백만 401(k) 계좌를 조사한 결과 2분기에 1백만 불 이상의 401(k)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2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.
- 6월 30일 기준으로 1백만불 이상의 계좌 소유자가 49만7천명이라는 것. 이는 1분기보다 2.5% 늘었다.

CNNBusiness 기사

Bloomberg: Intergenerational Housing Could Help Older Adults Combat Loneliness
세대 간 주택 공유, 미국 노인 외로움 덜어준다

- 미국과 영국에서 노인 거주 공간과 탁아소, 그리고 대학 캠퍼스 안에 노인 주택이 있는 모델을 지난 10년간 미국과 영국이 시도함으로써 노인들의 고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. 이 같은 혼합형 모델을 통해 사회화 과정, 커뮤니티 공동체 실현, 지식 공유가 이뤄진다는 것이다.
- 노인들이 거주하는 건물 다른 층에 유치원이 있어 두 그룹이 공유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시애틀의 프라비덴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는 1991년에 12명 규모의 탁아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4백명의 거주 규모에 125명의 아이들이 등록했다.
- 미국의 70개 대학은 캠퍼스나 가까운 곳에 성인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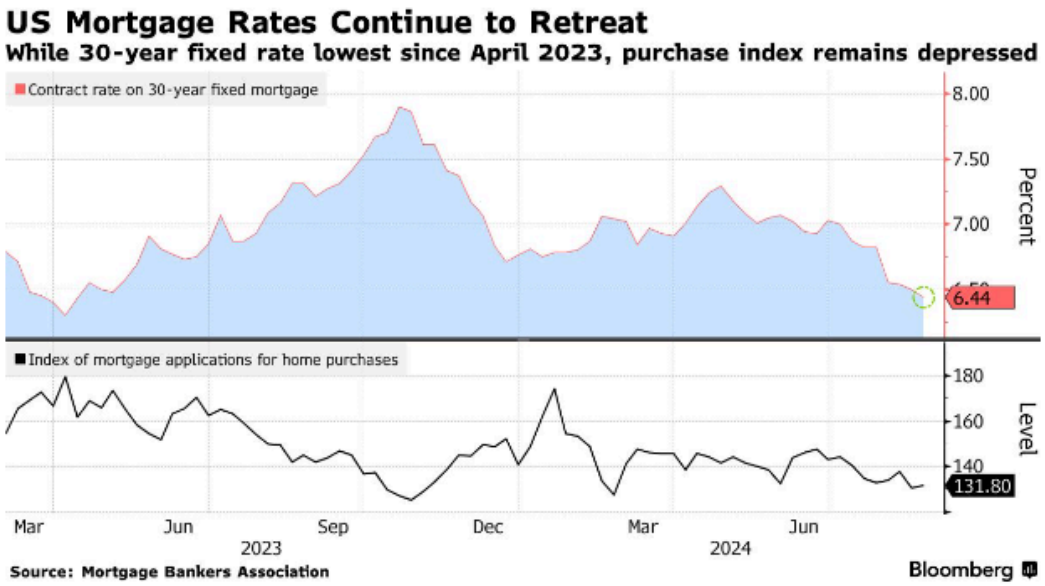
Bloomberg 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Mortgage Rates Drop Again to Lowest Level Since April 2023
미 모기지율 다시 감소, 작년 4월 이래 최저치

- 미 모기지율이 지난주에 다시 떨어져 지난해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.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신청자들이 다소 늘었다.
- 오늘 수요일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모기지율이 4주째 6.44%로 떨어져 올해 가장 긴 하락 기간을 보였다. 이에 따라 8월 23일 끝나

는 주간의 주택 구매 신청자들이 다소 증가했다. 그 전주에는 크게 줄었었다.

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

CNBC: U.S. crude oil falls nearly 2%, selloff gains speed as market dismisses Libya disruption
미국 원유 2% 하락, 리비아 혼란에도 매도 속도 증가

- 수요일 미국 원유는 배럴당 약 74달러로 약 2% 하락했다.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.6% 하락한 배럴당 78달러를 조금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.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이틀 연속 오일 가격이 하락해다.
- Barclay 에너지 분석가 Amarpreet Singh는 리비아 공급 문제에도 불구하고유가는 여전히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.
- 중국 수요 약화, 광범위한 경기 둔화 위험, OPEC+의 4분기 증산 계획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Clean Energy Jobs Grew at Twice the Rate of US Jobs Overall Last Year
친환경에너지 일자리, 미국 전체보다 2배 성장

- 친환경에너지 일자리가 바이든 정부 정책에 힘입어 미국 전체 일자리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. 친환경에너지 일자리는 2022년보다 142,000

개(4.2%) 증가했다. 이는 미국 새로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.

- 2022년 인플레이션 억제법(IRA)가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수요를 늘리고, 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. 고금리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태양과 풍력 분야도 일자리가 각각 5.3%와 4.5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Why the value meal is making a comeback
저렴한 세트 메뉴가 돌아오다

- 맥도날드,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고객들은 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시한다. LendingTree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0%가 패스트푸드가 사치품이 되어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.
-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렴한 세트 메뉴 전략이 돌아왔다. 현재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. 맥도날드는 방문객이 늘고 있으며, 저렴한 세트 메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.
- 뱅크오브어메리카의 선입 연구원인 Sara Senatore는 “이 업계에서는 가격이 중요하다”며 현재 상황이 좀 더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”고 진단했다.

CNBC 기사

WSJ: Walmart to Offer Logistics Outside Its Own Marketplace Sales
월마트, 외부 판매자를 위한 물류 제공

- 월마트가 다른 회사 플랫폼에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려는 판매자에게 주문처리 서비스를 개방해 아마존과의 물류 경쟁을 확대했다.
- 월마트는 외부 판매자도 월마트의 창고, 배송, 반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. 이 서비스는 9월 10일 출시 예정이다.
- 해당 전략은 아마존 매출의 60% 이상이 외부 판매자 상품인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Bloomberg: Retailers Are Making Millions From Cash-Back Fees, CFPB Says
CFPB "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수백만불 이익"

- 미국 금융 감독 기관이 Dollar General, Dollar Tree, Kroger 등 주요 소매업체가 계산대에서 현금을 찾을 때 캐시백 수수료로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.
-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는 화요일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캐시백 수수료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많다고 밝혔다. 시골 등 가까운 은행 지점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소매업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다.
- Dollar Tree는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명확하게 공개된 수수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Hyundai to Double Hybrid Lineup; Unveils $3 Billion Buyback
현대 하이브리드 라인업 2배 확대

-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2배인 14개로 확대했다. 그러나 연간 200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.
- 또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. 발표가 있던 수요일, 현대차 주가는 서울 거래에서 5.5% 급등했고, 4.7% 상승세로 마감했다.

Bloomberg 기사

9 월 美 금리인하는 대세인데…폭과 속도 두고는 '예측 분분'
8 월 고용지표 따라 0.25%p, 0.5%p 중 결정될 듯
뉴욕·시카고 연은 총재들, 7 월 대출금리 인하에 찬성

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연준이 오는 9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졌다.

하지만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릴지, 이후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.

시카고상품거래소(CME)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대부분 연준이 9 월과 11 월 두 차례 회의에서 25bp(1bp=0.01%포인트)씩 기준금리를 인하하고, 12 월에는 50b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